

“모두의 취향을 담고 싶어요”

인디밴드 ‘취향상점’ 편당 141% 달성

“음악적 영향 확인 계기...새로운 도전”

“멤버 모두 곡을 쓰다 보니 다양한 장르와 색깔의 음악이 나오죠.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의 취향을 담고자 하는 뜻으로 지었어요. 취향상점!”

재즈와 어쿠스틱 음악을 바탕으로 활동해 온 취향상점은 인디 음악계에서 꽤 알려진 밴드다.

2018년 ‘정은수와 친구들’ 이란 이름으로 시작한 이들은 2018년 제2회 충남음악창작소 제작 지원 사업 ‘아임 어뮤지션’(I'M A MUSICIAN)에서 대상을 받으며 주목받았다.

미니앨범 ‘24.4°C’·‘모든 그대’, 싱글 ‘오늘 밤을 날아요’ 등 음악적 행보를 이어오던 이들은 지난해 말 새 싱글 ‘블루 크리스마스(Blue Christmas)’를 준비하면서 편당 프로젝트를 도전했다.

보컬 도제현(23)은 16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많은 분께 ‘취향상점’을 알리는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음악적 영향을 주고 있는지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편당에 나선 이유를 말했다.

탐블벅을 통해 진행된 프로젝트 이름은 ‘인디 미술랭이이라면, 취향상점 싱글 음반으로’이다.

신곡 녹음을 마친 멤버들은 음원 마스터링, 뮤직비디오 촬영 등에 필요한 제작비를 모금했다. 멤버들이 사인한 CD와 스티커, 손거울 등 굿즈를 판매하고 수익금을 모으는 식이었다.

약 3주간 진행된 프로젝트는 30여 명이 참여했고 목표로 한 100만 원의 141% 수익을 달성했다. 별다른 홍보 활동을 하지 않았던 탓에 멤버들은 마감 전에 100%를 달성한 사실에 놀랐다고 한다.

편당 성공으로 힘을 얻은 곡은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맞춰 발매됐다.

취향상점은 ‘블루 크리스마스’는 음악적으로 한 단계 도약한 결과물로, 밴드를 대표할 수 있는 곡이라고 소개

했다. 그동안 잔잔하면서도 편안한 음악을 해오던 취향상점은 이 곡에서 ‘날 우울하게 한 창밖의/ 세상도 파랗게 파랗게/ 물들어 버리게 버리게/ 파란 눈을 내려 줘’라고 노래하며 사뭇 다른 분위기를 드러냈다.

도제현은 “음악적 발전을 마련한 곳 등 K팝 그룹과 작업해 온 작사가 이스란이 곡에 참여했다.”

도제현은 “‘블루’라는 단어가 가진 파란 색채와 우울하다는 뜻을 활용해서 크리스마스의 이미지를 나타낸 곡”이라며 “어두운 감성을 가진 음악을 한다는 건 우리에게 매우 큰 도전이었다”고 말했다.

콘트라베이스와 베이스를 담당하는 주지호(24)는 “‘블루 크리스마스’는 취향상점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딘

곡”이라며 “점수를 매기는 게 쉽지 않지만, 만약 준다면 100점 만점에 90점”이라고 평가했다.

멤버들은 편당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앞으로 취향상점이 보여줄 음악 세계가 많다고 자신했다.

팀의 리더이자 드러머인 강정혜(31)는 “지금의 취향상점은 함께 헤엄칠 넓은 바다를 향해 달려가는 중”이라며 “앞으로 해 나갈 많은 활동을 생각하며 아직 30% 정도 채워진 듯하다”고 말했다.

도제현은 “음악적 발전을 마련한 곳은 천안이지만 많은 이들에게 우리 음악을 전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활동 중”이라며 “올해는 공연장에서 관객들에게 우리 음악을 더 들려드리고 싶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취향상점이에요? 정반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어느 순간 뒤통수를 ‘딱’ 때리는데 정말 좋은 음악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주는 밴드면 괜찮지 않을까요?”

/연합뉴스



밴드 취향상점.

/AAA 제공



편당 통해 탄생한 취향상점의 ‘블루 크리스마스’.

/AAA 제공



방탄소년단(BTS).

/빅히트뮤직 제공

작년 K팝 음반 수출 ‘신기록’

역직구 플랫폼 전성기

글로벌 인기 증명도

지난해 K팝 음반 수출액이 2억2천만 달러를 돌파해 전년 대비 62.1%나 급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중국의 경우 한국 대중문화를 통해하는 이른바 ‘한한령’에도 불구하고 음반 수출액이 전년 대비 2.5배 이상 성장해 눈길을 끌었다.

16일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음반 수출액은 2억2,083만6,000달러(약 2,624억원)로 전년 1억3,620만1,000달러(약 1,618억원)의 1.6배를 웃돌았다.

5년 전인 2017년 음반 수출액은 4,418만2,000 달러(약 525억원)에 그쳤지만, 2018년 6,439만9,000 달러(약 766억원)·2019년 7,459만4,000 달러(약 886억원)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음반 수출 대상국을 살펴보면 일본이 7,804만9,000달러(약 927억원)로 수출액이 가장 컸고, 중국 4,247만6,000 달러(약 505억원)·미국 3,789만9,588만3,000 달러(약 450억원)·인도네시아 958만3,000 달러(약 114억원) 순이었다. 이어 대만, 태국, 네덜란드, 프랑스, 홍콩, 독일이 상위 10개국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중국같은 경우 ‘한한령’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수출액이 전년 대비 151.4%나 급증했다.

K팝 음반은 이들 국가 외에 부탄, 알제리, 벨라루스, 몰디브, 오만, 파키스탄 등지로도 수출된 것으로 나타나 글로벌한

인기를 증명했다.

가요계에서는 이 같은 현상을 두고 방탄소년단과 NCT를 필두로 한 대형 아이돌 그룹의 글로벌 인기를 꼽는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해외 투어 부재로 커진 해외 팬들의 ‘갈증’이 음반 구매로 분출됐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K팝 수출이 유례없는 대호황을 누리면서 외국 팬들이 직접 K팝 음반을 구매하는 역직구 플랫폼들도 전성기를 맞았다.

국내 대표 음반 등 역직구 플랫폼인 케이타운포유는 이 같은 분위기를 타고 지난해 매출이 2,146억원으로 5년 전 134억원보다 무려 16배나 증가했다.

케이타운포유 관계자는 “작년 매출 가운데 90%는 해외 K팝 팬들의 구매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케이타운포유는 지난해 K팝 음반 1,026만장을 판매했는데, 이 가운데 해외 판매 비중이 86.6%에 달한다.

방탄소년단, 세븐틴, NCT 등 국내 주요 대형 아이돌 그룹의 음반을 케이타운포유를 통해 시간 국가를 살펴보면 중국이 모두 1위를 차지했다. 특히 3위 국가의 경우 NCT 드림과 NCT는 인도네시아, 세븐틴은 필리핀으로 나타났다. 최원준 케이타운포유 대표는 “2022년 새해에 들어와 K팝 해외 팬들이 가장 많이 찾은 검색어 톱 5는 NCT, 에스파, 트와이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였다”며 “해외 팬들의 음반 구매가 급증하는 것을 보면 올해도 K팝 열풍은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OTT가 소비자들 시청 패턴 변화까지 바꿨다

배속 시청·요약본 인기... “주도적 콘텐츠 소비 성향”

넷플릭스·유튜브 등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이 콘텐츠 시장의 지형변이나 소비자들의 시청 패턴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최근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보고 싶은 콘텐츠를 선택해 보는 것에서 나아가 1.25배속, 1.5배속, 2배속 등 콘텐츠 재생속도를 입맛에 맞게 설정하는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원래 속도보다 빠르게 영상을 보는 것은 주도적인 시청 패턴 중 하나이며, 이런 상황이 TV 등 전통 매체의 위기를 앞당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평소 1.5배속으로 콘텐츠를 시청한다는 직장인 김모(27)씨는 “보고 싶은 것은 많은데 시간이 한정돼있어 빠르게 보기 시작했다”면서 “1년 정도 이렇게 보다 보

니 정속은 너무 느리게 느껴져 TV 방송을 보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또다른 직장인 김모(33)씨는 “원래 이야기 전개에 집중해 콘텐츠를 감상해와서 배속이 성향에 맞다”며 “시각과 청각을 자극하는 액션 작품은 제 속도도 보지만 그 외 영상들은 모두 빠르게 시청한다”고 설명했다.

“배속 시청” 외에도 영상을 ‘10초’ 단위로 넘기며 빠르게 시청하거나 유튜브 등에 올라온 ‘요약본’ 영상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이들도 있다.

최근 드라마·예능 등 TV 프로그램을 평소 1.5배속으로 콘텐츠를 시청한다는 직장인 김모(27)씨는 “보고 싶은 것은 많은데 시간이 한정돼있어 빠르게 보기 시작했다”면서 “1년 정도 이렇게 보다 보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정해진 속도에 맞춰 콘텐츠를 시청하지 않는 것은 창작자의 의도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디즈니플러스 등 배속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플랫폼도 있다.

이에 대해 30대 직장인 김씨는 “책을 읽을 때 속독과 정독 등 다양한 방식이 있듯 영상 콘텐츠 소비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전문가들도 배속 시청은 콘텐츠를 주도적으로 소비하고자 하는 이들이 가진 성향을 반영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전통매체는 이로 인해 맞게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배속 시청은 시대에 맞는 시청 패턴이자 주도적인 소비 성향을 반영”한다면서 “과거 미디어 환경은 수동적 소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여러 방식이 가능해

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TV 분량중 시청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새로운 시청 패턴의 등장과 맞물린다고 분석하면서 “지상파 등의 전통 매체들이 플랫폼의 힘에 의존하기보다 콘텐츠 중심의 사업으로 움직이는 이유”라고 말했다.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재생 속도의 조절로) 시청자들은 콘텐츠에 대한 또 다른 지배력을 확보했고, 원하는 방식으로 소비함으로써 콘텐츠를 확실하게 통제했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 아주 수동적이고 보수화된 시청자층은 울드 미디어의 시청패턴에 큰 불만이 없지 않지만 얼마 가지 못할 것”이라면서 “전통 매체들은 자신들의 플랫폼과 채널이 마주한 위기를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스크린으로 보는 장민호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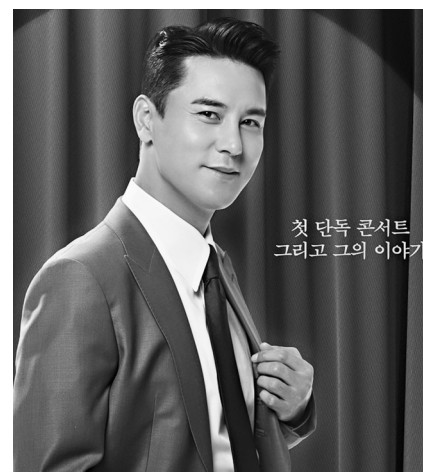
‘드라마’ 24일 CGV서 개봉

가수 장민호의 첫 단독 콘서트 ‘드라마’가 24일부터 전국 CGV에서 상영된다. 예시입찰이 16일 밝혔다.

“장민호 드라마 최정화”라는 이름의 이 공연 실황에는 장민호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24년 만의 첫 단독 콘서트와 그비하인드 인터뷰가 담겼다.

장민호는 오는 17일 오후 9시 개봉 기념 온라인 쇼케이스를 열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다.

영화 개봉과 맞물려 특별 굿즈도 판매된다. /연합뉴스



장민호의 첫 단독 콘서트 담은 영화 ‘드라마’ 포스터 /에스이십칠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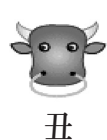
오늘의 운세 김도원 선생 제공 02-766-1818 www.esazu.com

1월 17일 (음력 12월 15일)



子

48년생 갑자기 부수입이 생긴다. 60년생 꼬이던 일이 드디어 풀린다. 72년생 받을 돈이 있다면 재촉하면 받을 수 있겠다. 84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겠다.



丑

49년생 작은 일도 가족과 의논하라. 61년생 섭섭해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라. 73년생 수고는 많지만 공이 많다. 85년생 정심은 없지만 일은 잘 풀린다.



寅

50년생 예정에 없었던 지출이 발생한다. 62년생 부질없는 일에 시간을 빼앗기지 말라. 74년생 만나고 싶은 사람을 우연히 만난다. 86년생 하면 된다.



卯

51년생 행운을 찾아 나서라. 63년생 옛 것을 지키면 좋은 일이 있겠다. 75년생 재물이 들어오지만 곧 나간다. 87년생 교통사고와 음식을 조심하라.



辰

52년생 친구 간에는 신의가 있어야 한다. 64년생 긍정적인 생각이 인생을 바꾼다. 76년생 경사가 겹치니 즐거움 날이다. 88년생 뜻밖의 행운이 있겠다.



巳

41년생 큰 피해만 아니라면 잠은 편이 낫다. 53년생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니다. 65년생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77년생 직장에서 인정을 받겠다.



午

42년생 욕심은 적당히 부려야 한다. 54년생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좀 더 기다려라. 66년생 당장 필요한 것은 휴식이다. 78년생 몸과 마음 바쁘다.



未

43년생 매사를 순리대로 처리하라. 55년생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라. 67년생 뜻은 좋지만 실현되기는 어렵다. 79년생 허세를 부리면 손해가 있겠다.



申

44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56년생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 68년생 공든 탑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80년생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 아쉽다.



酉

45년생 가족 외는 아무도 믿을 수 없다. 57년생 노력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69년생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니다. 81년생 나서지 말고 관망하라.



戌

46년생 꼭 받은 만큼 되돌려 주어야 한다. 58년생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행하라. 70년생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82년생 후회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



亥

47년생 주변 사람의 조언을 존중하라. 59년생 평소 실력 발휘하면 된다. 71년생 이성 동료와 갈등이 있겠다. 83년생 성공을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